

栗寺本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국어학적 고찰

신 중 진*

1. 머리말

異本이 다양할 때, 이들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방법도 다양하다. 이상적으로는 그들 이본들을 모두 비교·검토함이 바람직하겠으나, 우선 이본들 중 原刊本이 있을 경우에는 원간본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든가, 원간본이 없을 경우에는 最古本을 중심으로 접근하든지, 아니면 가장 최근에 발견된 이본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언어사실을 찾아 설명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는 서지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필자가 국어학적으로 고찰하려는 문헌은 《父母恩重經》이다.¹⁾ 《父母恩重經》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직 소개되지 않은 栗寺本²⁾ 《父母恩重經》의

* 석사과정

- 1) 《恩重經》 내지 《父母恩重經》이라고 알려진 거의 모든 문헌의 卷頭題는 ‘佛說大報父母恩重經’으로 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父母恩重經》이라 줄여 부르기로 한다.
- 2) 鷄龍山 栗寺는 《新增東國與地勝覽》 17卷 9張 뒷면에 “栗寺 中心寺 東學寺 上院寺 (俱在鷄龍山)”이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은 所在하지 않지만, 실제로 계룡산에 있었던 사찰임이 확인된다(괄호는 원문에 쌍행협주로 된 부분이다).

원책 크기 복사본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父母恩重經》으로 불리는 문헌은 대략 20여 종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들에는 漢文本과 諺解本이 있는데, 우선 언해본에 관심을 두고 고찰하였다. 그리고 부분부분에 한문본³⁾을 참조하여 살펴보았다.⁴⁾ 필자가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父母恩重經》 언해본으로는 송광사본, 회방사본, 栗寺本, 간기미상본이었다.⁵⁾ 왜냐하면 이들은 版式이 동일하여 이본들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고, 이들의 원본에 대한 형식, 간행 연대, 내용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간기미상본의 간행 연대와 간행 장소 등을 추정할 수 있고, 最近本인 栗寺本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이본 가운데 원간본이라고 생각되는 책이 없기 때문에 필자는 최근에 소개된 栗寺本을 중심으로 현전하는 최고본인 송광사본 및 회방사본, 간기미상본과 이본 관계를 밝히고 국어학적 의의를 기술하려 한다. 결국 이 글의 근본 목적은 계룡산 栗寺本을 소개하고, 그것의 국어학적 의의를 언급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2장에서는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서지적 사항을 기술하고, 3장에서는 栗寺本과 이본들의 관계를 설명할 것이다. 4장에서는 《父母恩重經》의 내용을 소개하고, 5장에서는 栗寺本 《父母恩重經》에 나타나는 국어사적 특징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6장을 맺음말로 삼을 것이다.

2. 栗寺本의 서지적 사항

栗寺本은 萬曆 四十六年(1618년, 광해 10년) 戊午 五月에 公洪道(충청도)

-
- 3) 이 글에서 참조한 한문본은 奎章閣 古書로 청구번호는 <古書 294.318 B878>이다.
 4) 한자의 字形과 插圖를 조사할 때는 한문본을 참조했다.
 5) 송광사본은 규장각에서 필자가 직접 확인하였고, 회방사본, 간기미상본은 原冊을 볼 수 없어서 대학사에서 영인한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울산본은 1996년 5월 24일 석가탄신일에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남권희 교수 주재로 열린 고서전시회에서 소개된 책을 필자가 직접 가서 확인하여 복사한 것이다. 책의 상태로 보아서 服藏本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남권희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公州地(공주군) 鷄籠山 栗寺에서 重刊한 寺刹本으로 최근에 소개되었다. 장정은 線裝이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간본을 복각한 木版本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와 가로가 각각 27.2cm와 17.5cm이다. 간인형식은 單行本으로 총 28장이다. 匡廓의 형식은 四周單邊이며, 有界이다. 半廓의 크기는 세로와 가로가 각각 19.3cm와 14.8cm이다. 行款은 1면 10행이고, 1행은 18자이다.⁶⁾ 권두제에 대한 언해나 삽화가 있는 면에서 삽화제와 그 곳의 본문에 대한 언해는 쌍행으로 언해되어 있다. 版心은 上下內向黑魚尾이고, 上下大黑口로 되어 있다. 卷頭題는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이고, 卷尾題는 佛說大報父母恩重經終으로 끝난다.

이 책은 본문 26장, 刊期·施主名·偈頌 2장으로 되어 총 28장이다.⁷⁾ 印面이 깨끗하고, 삽화도 이본들 가운데 가장 정교하게 판각되어 있다. 1, 2, 4장을 제외하고 모든 장의 앞면의 광곽 하단 변에 施主者名이나 比丘名이 판각되어 있다. 紙頭나 紙邊의 군데군데, 같은 사람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필사되어 있다. 아주 흥미있는 것은 落張의 상태에 있다. 이 책의 낙장은 본문 18b와 19a면, 23b와 24a면이다. 나란한 두 장에서 앞장의 b면과 뒷장의 a면이 없어지는 예는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형에 관해 살펴보면, 한자는 일반 불서의 자형과 마찬가지로 대자형으로 되어 있다, 다만 같은 자가 다르게 판각되기도 한다. 가령 1a면에 ‘如來’가 두 번 나타나는데, 각각 ‘來’자가 字形이 다르다. 그리고 17b면과 20b면의 ‘如來’의 字形이 다르다. 이것은 이본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삼을 수 있다. 언해문의 자형에서 눈에 띄는 특징적인 것은 ‘ㅇ’의 판각이 다른 자형과 달리 굵기가 아주 가늘다는 것이다. 이것도 다른 이본과의 관계를 살필 때, 하나의 방법으로 삼을 수 있다.

6) 한자와 언해문의 자형 크기가 동일하다. 다만 한문과 언해문은 항상 改行되어 있고, 한문을 기준(首字)으로 볼 때, 언해문이 한 자 내려가 있다.

7) 이들 뒤 장에 배접한 듯한 종이에 을사본의 간기인 만력 46년 바로 다음 해인 ‘萬曆 四十七年 己未 七月日 申□□兩主’와 ‘化士 李□□’의 수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을사본이 복장될 때의 기록으로 추정된다.

佛說大報父母恩並經
佛說大報父母恩並經
佛說大報父母恩並經

佛說大報父母恩並經

如是我聞一時佛在王舍城閻提國祇樹

獨園與大比丘三萬八千人等齊集

時世尊將領大衆往詣南行見一堆枯骨

如表三時禮葬枯骨阿難入衆首佛言

尊如泉是三界大師而生慈父衆人歸敬

禮拜枯骨

일시에 부레와 사서 의 데 삼안 팔천

고 구시 더 너 대 주 는 의 의 몸 마

시 다 가 산 듯 지 려 는 의 의 몸 마

第八 遠行憶念恩



金世山

死別誠難忍 生離亦悲傷
 子出關山外 母意在他鄉
 日夜心相逐 流淚數千行
 如猿逐愛子 憶念斷肝腸

主君 어 희 문 진 실 로 줌
 더 몬 허 거 니 와 사 라 셔
 여 회 미 더 모 열 또 다 이
 등 리 관 산 빛 키 나 가 시
 드 니 어 의 브 더 타 향 의 잇
 르 조 가 샷 의 다 수 미 서
 천 주 리 호 르 닷 다 진 날
 스 림 호 미 애 국 천 도 거

金世山頌曰

說皆大歡喜信受奉行作禮而退

부덕에 관한 여러 공사의 이익의 일부를 배

보 부모의 공덕의 이익을 보오니 이익의 많은

이제 드나라 데 지다 부덕의 말씀 들을 듣고

거 베풀고 고를 리와 부덕이니라

報父母恩重真言

曩謨三滿多沒馱喃答識曩娑嚩訶

佛說往生真言

曩謨三滿多沒馱喃答識帝律尼薩嚩賀

佛說大報父母恩重經終

萬曆甲午年戊午五月日公洪道公州地鷄龍
 山栗寺重刊 仍慈奉祝
 主上三殿壽萬歲 法界會靈俱登覺岸
 借養大施主 柵德坊兩主
 布施大施主 全年希兩主
 布施大施主 柳坪金兩主
 布施大施主 裴衣順兩主
 供養大施主 尹氏順非
 未嘗酒大施主 春德兩主
 李百谷兩主 金還男
 金云兩主 金五
 申斗水兩主 金順兩主
 金世文兩主 申代
 朴代銀照
 朴水男兩主
 朴介兩主
 向介兩主
 庶加朴兩主
 金億京兩主
 庶子伊兩主
 金德直兩主
 徐俊明兩主
 李伊兩主

3. 栗寺本과 이본들의 관계

3.1. 栗寺本과 송광사본의 관계

먼저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송광사본은 一蓑 방중현 선생의 手澤本으로 嘉靖四十二年(1563년, 명종 18년)에 전라남도 송주군 조계산 송광사에서 印出되었다. 장정은 線裝인데, 표지는 후대에 개장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된 五針眼訂法으로 장정이 묶여 있다. 책의 크기는 세로와 가로가 각각 25.2cm와 18.2cm이고, 刊印形式은 單行本 총 30張이다. 匡廓은 四周單邊이며, 界線은 有界이나 불분명하다. 行款은 1面 10行이고, 1行은 18字이다. 卷頭題나 부모의 열 가지 은혜와 관련된 插畫가 있는 면에는 항상 언해가 쌍행으로 되어 있다. 판심은 上下內向黑魚尾이고, 권두제는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이며, 표제는 地藏菩薩이라 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총 30장 가운데, 23장과 24장이 筆寫되어 있다는 것이다. 필사된 면의 紙質이 다른 면과 상태가 다른 것으로 보아 인출 이후에 落張을 다시 붙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은 전광현(1986)에서 대략 언급되었듯이, 본문은 26장, 十法界頌 1장, 十八地獄 2장, 발원문·간기·刻手名·施主名 1장으로 되어 총 30장이다. '△, ○'이 이본들 중에서 가장 흔들림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필사된 부분에 傍點이 보이며, 특히 인출된 부분 중에서 본문 마지막 면(26b면)에 방점이 찍힌 곳이 있다.⁸⁾ 이것은 송광사본이 원간본을 복각할 때, 방점까지 함께 판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印面이 조잡하고, 필자가 비교한 후대본들보다 깨끗하지 못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송광사본과 栗寺本을 비교할 때, 일단 두 책이 모두 인출기 내지 간기가 있기 때문에 송광사본이 절대적인 연대가 앞선다고 할 수 있다. 하

8) 안병희(1992)에서 송광사본을 소개할 때, “방점이 없다. 방점 표기가 지양된 초기 문헌인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본문에서 지적했듯이 방점이 나타나는 곳이 있다. 물론 이 책에 찍힌 방점이 현실 성조를 반영한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필사하거나 복각할 때, 각수가 원간본에 있는 방점을 함께 판 것으로 추정된다.

지만 판본상태로 보아서는 栗寺本이 더 깨끗하고 삽화도 더 정교하다.

송광사가 있는 조계산은 전라남도에 소재한다. 그리고 栗寺가 있는 계룡산은 충청도에 소재한다. 이 두 지역은 방언분포가 달리 나타날 만큼 지리적 거리가 있다. 그런 두 사찰에서 복각된 사찰본에는 당연히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물론 시간적 거리도 두 이본간에 나타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에서 오는 차이점에 주목하기에 앞서 이들 이본의 공통점을 살폈다. 왜냐하면 이들 가운데 원간본이 없다면, 공통점을 가지고 원간본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이본의 공통점으로 머리말에서도 잠깐 지적되었듯이 판식이 동일하다. 언뜻 보면 거의 동일 판에서 인출된 것으로 착각될 정도이다. 이 하나의 사실에서 이들은 같은 원간본을 판각한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송광사본이 栗寺本의 원본이 아닌 것도 확실하다. 자형의 세세한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앞에서 판본의 관계 규명의 수단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如來’字들의 ‘來’가 송광사본은 동일하게 나타나나, 栗寺本은 다르게 나타난다. ‘오’의 굵기가 송광사본은 다른 언해 글자와 같은 크기인데, 栗寺本은 굵기가 가늘다. 무엇보다도 삽화를 비교했을 때, 송광사본에 생략이 많고, 조잡하게 되어 있는 반면, 栗寺本은 그 상태가 아주 깨끗하고 정교하다. 두 이본의 차이점으로 위에서 지적한 것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총 張數에서 차이가 있다. 본문 26장은 동일하나, 송광사본에는 栗寺本에 없는 十法界頌 1장, 十八地獄 2장이 더 묶여 있다. 둘째, 시간적 거리의 반영으로 송광사본은 ‘△, ㅎ’이 거의 혼란 없이 사용되는데, 栗寺本은 송광사본에 비해 많이 혼란되고 있다. 셋째, 방언 차이로 인해 ‘△’의 자리에 ‘ㅅ’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예가 栗寺本은 송광사본에 비해 더 많이 보인다.⁹⁾

이상에서 알 수 있는 송광사본과 栗寺本의 관계는 前記와 같은 서지적 사항을 통해 인출 시기와 인출 장소는 각각 달라도 이들이 같은 원간본에서 복각되었다는 것이다.¹⁰⁾

9) 송광사본에 ‘△’이 ‘ㅅ’으로 나타나는 예는 ‘어비씨’가 ‘어비시’로 나타나는 예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는 필자가 비교한 다른 이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이들의 원간본의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을 조사하는 것은 원간본과 그것의 간행 연대를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10) 실제로 송광사본보다 10년 앞선 목판본이 최현배(1940)에 권두면의 영인과 함께 소개되

3.2. 栗寺本과 회방사본의 관계

회방사본은 필자가 직접 원본을 조사할 수 없어서 일단 전광현(1986)을 따르고, 복사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 항을 기술하겠다.

회방사본은 萬曆二十年 壬辰年(1592년, 선조 25년)에 경상북도 영풍군 소백산 회방사에서 간행된 사찰목판본이다. 이 책은 가람문고에 소장된 것으로 앞의 책들과 판식이 거의 동일하다. 송광사본에 비해 자형이 고르고 가늘다. 삽화는 한문본이나 栗寺本에 비해 소략한 부분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림이 조금 변조된 곳도 있다. 본문은 대체로 원간본을 충실하게 판각한 것 같으나 삽화는 원간본대로 복각하지 않았거나, 각수가 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행 형식은 단행본 총 27張이다. 광곽은 四周單邊이며, 계선은 유계이다. 행관은 앞의 책들과 동일하고, 판심은 上下內向二葉花文魚尾이다. 총 27장 가운데 5, 6, 11, 12, 25, 26장이 落張이며, 시주명·간기·각수명이 1장이고 나머지는 본문이다. ‘△’은 송광사본과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며,¹¹⁾ 송광사본과의 차이는 ‘ㅇ’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방점이 군데군데 나타난다.¹²⁾

회방사본(1592년)은 栗寺本(1618년)보다 26년이 앞선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본들과 판식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자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원간본으로 복각했음이 틀림없다. 물론 이들 사이에도 차이점이 있다. 첫째, 총 장수가 다르다. 즉 회방사본은 27장이고, 栗寺本은 28장이다. 둘째, 회방사본은 ‘△’에 혼란이 거의 없다. 하지만 栗寺本에는 혼란이 많고, 특히 ‘△’에 대해 방언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는 자형이 있다. 셋째, ‘ㅇ’은 오히려 후대본인 栗寺本이 거의 혼란 없이 규칙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회방사본은 ‘ㅇ’가 모두 ‘ㅇ’으로 나타난다. 넷째, 栗寺本과는 달리 회방사본에는 ‘如來’의 ‘來’가 항상 동일하게 나타

어 있다. 이 판본은 嘉靖 32년(1553년, 명종 8년) 癸丑 六月에 京畿 長湍地 寶風山 華藏寺에서 開板한 책이다. 권두면의 영인 상태는 송광사본보다 정교하고 율사본의 판본 상태와 거의 비슷한 것이 흥미롭다.

- 11) 회방사본도 ‘어버시’만 ‘어버시’로 나타난다. 이것은 이들이 복각될 때, 같은 원간본을 복각했다는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이다.
- 12) 회방사본에 보이는 방점을 찍은 어휘의 예는 ‘행시리(13b), 수목하야(13b), :영영(14b), ·혹·우다가(14b), ·브효·즈식(23b), :우래(23b), :다.옥(23b), :무쇠(23b)’ 등이 있다.

난다. 다섯째 삽화에도 차이가 있다. 역시 栗寺本이 회방사본보다 인면이 깨끗하고 삽화도 더 정교하다. 그러나 회방사본은 송광사본에 비해 훨씬 정교하고 깨끗하다.

3.3. 栗寺本과 간기미상본의 관계

간기미상본은 그야말로 간기나 인출에 관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책이다. 이와 같이 인출기나 간기, 내사기가 없는 책에 대한 절대 연대추정은 보통 장정 상태, 판식, 지질, 종이에 나타나는 발의 간격, 자형 등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본이 있을 때에는 이본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그 상대 연대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간기미상본의 원본을 볼 수 없었기에 복사본과 이본의 비교를 통해 이본과의 관계와 이 책의 상대 연대를 어느 정도 추정하려 한다.

먼저 간기미상본은 표지를 제외하고 총 26장인 단행본이다.¹³⁾ 즉 본문만 있고, 간기는 말할 것도 없이 발원문이나, 시주자명, 각수명, 계송 등은 없다.¹⁴⁾ 광곽은 시주단변이고, 계선은 유계이다. 행관은 앞의 이본들과 동일하다. 版心은 上下內向一葉花文魚尾이고¹⁵⁾ 大黑口이다. 삽화가 아주 정교하고 깨끗하다. 인면은 栗寺本보다 오히려 깨끗하다.

栗寺本과 간기미상본의 관계에 대한 결론부터 말하면, 간기미상본은 栗寺本을 복각했다는 것이다. 이 두 이본과의 관계는 공통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이점부터 들면, 첫째, 栗寺本에는 언해문 표기에서 ‘ㅇ’이 반영되어 있으나 간기미상본에 오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즉 이것은 栗寺本의 ‘ㅇ’이 거의 혼란 없이 나타나는 것과 대조된다. 둘째, ‘△’이 나타나기는 하나 부분적으로 ‘스’字 모양으로 나타나는 곳이 있다.¹⁶⁾ 셋째, 栗寺本과 비교했을 때, 탈획된 부분이 보인

13) 본문 중에서 23장과 24장이 다른 본문의 자형과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이 부분이 후대에 보편되었음을 말한다.

14) 시주자나 比丘의 이름이 광곽의 변에 곳곳에 판각되어 있다. 이것은 栗寺本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15) 군데군데 二葉, 三葉花文魚尾가 나타난다. 심지어 24장 등에는 四葉花文魚尾도 나타난다.

16) 이것은 이미 간기미상본이 간행될 때는 ‘△’에 대한 인식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국어사적으로 밝혀진 ‘△’ 소실 시기에 대한 하나의 방증이 된다.

다. 넷째, 삼화가 정교하기는 하지만 栗寺本보다는 정교한 맛이 덜하다.¹⁷⁾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栗寺本과의 비교에서 공통점을 생각하면, 사소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앞에서도 주장했듯이 이 두 이본의 관계는 간기미상본이 栗寺本을 직접 복각했다는 것에 있다. 필자는 이것에 대한 증거로서 두 이본의 공통점을 지적함으로써 방증하려 한다.

첫째, 판식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필자가 주목하는 송광사본이나 회방사본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栗寺本에 ‘△’이 ‘ㅅ’으로 변한 곳에 똑같은 어휘에 간기미상본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셋째, 필자가 앞에서 이본과의 관계 규명을 위한 수단으로 삼은 한자의 字形에서 ‘如來’자의 ‘來’가 완전히 동일한 張行의 ‘如來’자의 ‘來’에 똑같이 상이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넷째, ‘ㅇ’의 굵기가 두 이본이 동일한다. 즉 ‘ㅇ’ 이외에도 자형 자체의 고름 정도와 기운 정도가 동일한다.

다섯째, 栗寺本의 誤字나 脫割 부분에는 간기미상본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栗寺本의 6장 b면에 ‘오슬’(오슬)이 간기미상본에도 같은 곳에 ‘오슬’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오자가 그대로 판각된 것으로 보인다. 栗寺本의 3장 b면에 ‘즈세(<즈세) 드르라’가 간기미상본에도 같은 곳에 ‘즈세 드르라’가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탈획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거나 혹은 ‘ㅅ’이 ‘ㅈ’나 ‘ㅊ’ 앞에서 음성적 구개음화가 실현된 이후의 표기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결정적인 증거로서 두 이본에만 보이는 음운 현상으로 구개음화가 반영된 부분에 똑같이 구개음화가 나타난다.¹⁸⁾

17) 간기미상본의 삼화가 율사본의 삼화보다 문양이 단순하다. 가령, 지붕의 빗금이 율사본에 비해 간기미상본이 사선이 아닌 직선으로 되어 있고(7b), 마루의 선도 간기미상본이 훨씬 단조롭다(8a).

18) “김 오슬(오슬) 넛지 아니하니(6b)”에 대해 율사본과 간기미상본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음에 고찰해야 할 사항으로 그럼 어느 것이 앞선 판본인가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두 이본의 차이점을 고려할 때, 즉 '간기미상본'에는 'ㅇ'이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탈획이 '간기미상본'에 더 많이 보인다는지,¹⁹⁾ '△'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표기에 더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지 하는 것을 보아 만력 46년의 栗寺本이 절대 연도가 앞선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공통점으로 간기미상본은 계룡산 율사에서 복각한 사찰목판본을 가지고 가서 다시 복각한 것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간기미상본의 인출 遡及 연도는 만력 46년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간기미상본은 적어도 1618년 이후에 간행된 목판본임을 알 수 있다. 즉 간기미상본은 17세기초까지 그 간기가 소급되는 목판본으로서 근대국어 초기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4.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내용

이 책의 내용상 체계를 보면, ①첫부분은 阿難을 비롯한 여러 弟子와 大衆의 물음에 부처가 대답하는 대화체 형식으로 되어 있다. ②그리고 소위 액자식 구성이라 할 수 있는 삽화와 함께 어머니가 자식을 배고 낳은 후의 열 가지 은혜를 열거하는 부분이 있다. ③그 이후 장에서 다시 부처와 제자의 대화가 나타나고, ④다시 삽화와 함께 은혜의 깊음에 대한 여덟 가지의 가상의 상황이 나온다. ⑤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대화체 형식으로 나타난다. 줄거리는 대충 다음과 같다.

- ① 어느 날 부처가 제자 삼만 팔천 명을 거느리고 길을 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고 절을 하였다. 이에 제자와 대중이 묻기를, “세존이시여. 스승이시고, 아버지시며, 모두의 존경을 받거늘 어찌하여 뼈를 보고 절하십니까?” 하니 부처가 “이 뼈는 전생의 나의 할아버지나 부모이기 때문에 절하노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阿難에게 “이 뼈를 둘로 나누라.”고 명하였다. 남자의 뼈는 그 남자가 이생에서 불경을 읽는 소리도 듣고 자기 입으로 외우기도 하며 三寶를 향해 절하고

19) 율사본에 '음똥ㅎ니(3b)'로 나타나는 곳에 간기미상본은 '음똥ㅎ니'로 나타난다. 반대로 율사본의 誤刻 부분은 바로 정정한 부분도 있다. 가령, 율사본에 '빚브르개 ㅎ고(8a)'가 간기미상본에는 똑같은 곳에 '빚브르개 ㅎ고'로 나타난다.

부처의 이름도 염하였을 것이니 회고 무거우며, 여자의 뼈는 그 여자가 생전에 음탕한 욕심에 자기 뜻을 방자스럽게 했고 또한 아이를 낳을 적마다 서말 서되 의 피를 흘리게 되며 여덟 섬 너 말이나 되는 젖을 먹어야 하니 검고 가벼워진다고 설법하였다. 이에 阿難이 슬픈 마음에 부처에게 묻기를, “어미의 은혜와 덕을 어찌해야 갚겠습니까?” 하니 부처가 阿難에게 자세히 듣기를 청하고 어미가 자식 배어 열 달 사이에 갖는辛苦를 각 달마다 자세히 말하고 있다.

- ② 첫째 어미가 자식을 배어 몸을 간수하는 은혜, 둘째 산달이 차니 수고하는 은혜, 셋째 자식 낳으니 시름 잊는 은혜, 넷째 쓴 것 먹으며, 단 것 토하여 먹이는 은혜, 다섯째 아기를 마른 곳에 눕히고 진 곳에 눕는 은혜, 여섯째 젖 먹여 기르는 은혜, 일곱째 자식 씻기느라 깨끗하지 못한 은혜, 여덟째 자식이 나가거든 사념하는 은혜, 아홉째, 모진 업을 짓는 은혜, 열째 끝까지 생각하여 가련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음을 삽화와 함께 언급된다.
- ③ 부처는 阿難에게 말하기를 “이 같은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자식들이 불효를 하게 되는데 흔히 그들은 장성하는 과정에서 형제, 친우 간에 예의도 없어지고 우애도 없어서 이로 인해 부모를 배반하기도 하며 행실이 온전치 못하여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고 득병하게 한다. 결혼 후에도 부모를 봉양할 줄 모르고 항상 부모가 슬픔과 근심에 쌓이게 한다.” 하며, 이와 같이 무수히 많은 불효를 자식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恨歎스럽다고 말한다. 그리고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높은 것인가를 설법한다.
- ④ 여덟 가지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여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다.²⁰⁾ 그 여덟 가지 가상의 상황은 첫째 부모를 업고 수미산을 백천 겁 도는 상황, 둘째 기근을 만나 부모를 위해 몸을 배어 가는 것을 백천 겁하는 상황, 셋째 부모를 위하여 칼로 눈을 도려내어 부처께 바치기를 백천 겁하는 상황, 넷째 부모를 위하여 칼로 가슴을 배어 피 흘려 땅에 퍼지기를 백천 겁하는 상황, 다섯째 부모를 위하여 백천 개의 칼로 몸에 두루 찌는 것을 백천 겁하는 상황, 여섯째 부모를 위하여 몸으로 등을 삼아 부처께 불 밝히기를 백천 겁하는 상황, 일곱째 부모를 위해 제 뼈를 부수고 골수를 내는 것을 백천 겁하는 상황, 여덟째 부모를 위하여 뜨거운 무식환을 입에 머금고 몸이 타지기를 백천 겁하는 상황이다. .

20) 율사본에는 두번째와 세번째 삽화가 빠져 있다.

⑤ 대중이 부처의 설법을 듣고 울며,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며, 어떻게 해야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지를 부처에게 묻는다. 이에 부처가 말하기를 “부모 위해서 이 경을 써 읽으며 전에 지은 죄를 뉘우치며 부처를 맞이하여 복을 닦아라. 그러면 효자가 되니 지옥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리고 阿難에게 불효하면 지옥에 빠지는데 지옥에서는 온갖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전생에 오역의 불효한 죄를 지었기 때문임을 말한다.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울며 부처에게 어떻게 해야 부모의 은혜를 갚으리이까 하고 물으니, 부처가 “이 경을 한 권, 열 권, 일만 권을 읽어 부처를 보고 부처와 옹호하여 부모님이 하늘 위에 가 즐거운 일을 만나게 하며 영영 지옥의 수고와 이별하게 하라.”고 설법한다. 그러자 제자, 대중 및 모든 사람이 다 각각 발원하여 부처의 가르침을 잊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끝으로 阿難이 묻기를 “이 경의 이름을 무엇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부처가 “大報父母恩重經이라 하노라.”하고 말하니, 모두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물러나 봉행한다.

5. 국어사적 특징

어떤 문헌이든지 그 시대의 언어 사실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와 같이 시기별로 국어를 고찰하는 것도 각 시기의 문헌자료들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며, 시기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언어 사실을 나름대로 표기가 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언어보편적 특성은 《父母恩重經》에도 해당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父母恩重經》의 국어사적 특징을 음운, 문법, 어휘 및 표기의 순으로 기술하려 한다.

5.1. 음운

음운의 면에서 주목되는 첫번째가 ‘ㅅ’의 표기에 있다. ‘ㅅ’을 가진 어휘에는 ‘ㅆ슴, 가슴, 처삼, 아스, 브스다, 어버시’ 등이 있고, 문법 형태소 중에서 소위 강세접미사 ‘-ㅅ’이 또한 나타나고 있다.²¹⁾ ‘ㅅ’이 나타남직하지만 실현되지 않는

21) 이에 대한 용례로는 ‘이체ㅅ(17b), 엇데 ㅎ여ㅅ(17b, 22a)’ 등이 있다.

어휘로는 ‘스이’가 있다. 흥미로운 예는 다음과 같다.

- (1) ㄱ. 아버지(어버이; 16a, 17a), 므슴(마음; 7a, 9a, 11b), 엇데 ㅎ야사(24b)²²⁾
 ㄴ. 도게샤(12b),²³⁾ 이숙게샤(17b)

(1ㄱ)은 중세국어에서 ‘△’이 보이는 어형으로 여기서는 ‘스’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부방언 이외의 방언에서는 ‘△ > 〇’과 같은 통시적 음운변화를 입은 어형이 아니라 원래 ‘스’을 갖는 방언형이 발견되는데,²⁴⁾ 여기서의 예도 동계의 사실을 말한다. 즉 ‘어버시, 므슴’ 등은 ‘어버시, 므슴’ 등과 함께, 그 지역의 방언형으로서 공존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어버시’에 대해 栗寺本 《父母恩重經》은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이본들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것은 16세기초를 전후해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간본의 실제 모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1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표기에 ‘j’가 첨가되었다는 것이다. 이현희(1995: 565~6)에 따르면 이미 중세국어에서 ‘-아/어샤’가 ‘-에/에샤’로 표기되어 나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샤’가 ‘-샤나’ ‘-야’로 변화한 단계에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언중들에 의해 ‘-샤’가 ‘-샤나’ ‘-야’로 인식되고 있고 또 이 ‘-샤, -야’의 ‘j’의 영향으로 선행 음절의 ‘-아/어’에 ‘j’가 첨가되어 이중모음화 현상이 일어나 ‘-에/에’로 표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父母恩重經》에 의해서도 방증된다. 즉 ‘-거샤>(-거샤)>-게샤(샤)’의 통시적 변화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데, (1ㄴ)에서는 ‘-샤’로 표기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샤’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샤’에 의해 선행 음절의 ‘-거’가 ‘-게’로 표기

22) (1ㄱ)에서 ‘엇데 ㅎ야사’에 대해 일반적인 표기법에 의하면, 같은 부분에서 간기미상본 및 다른 이본에서 보이는 소위 강세접미사 ‘-샤’가 나타나야 할 것이지만 ‘-샤’로 표기되고 있는 예이다. 강세접미사 ‘-샤’는 고대국어의 형태인 ‘-沙’가 현대국어의 방언형에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이현희, 1995: 523), ‘엇데 ㅎ야사’는 그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23) 송광사본에는 ‘도게샤’로 나타난다. ‘동다’의 기본적인 문법범주는 형용사로 ‘좋다’는 의미이나 ‘부되 병이 나느니 그 병이 도게샤 부모도 편호느니라’에서는 ‘(병이) 나아지다’의 의미로 동사의 용법을 보인다.

24) ‘여우’에 대한 방언형으로 ‘여시, 여수, 야시, 예수, 예수’ 등이 나타나고 ‘무’에 대한 방언형으로 ‘무수, 무시’ 등이 나타난다. 특히 충청도 방언에서도 ‘여수’가 보고되고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한국방언자료집》(한국경신문화연구원)을 참조할 수 있다.

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통시적 변화는 '-거샤>(-거샤)>-계샤(샤)>-거야~-계야의 과정으로까지 이어져서 현대국어에서는 '-거야~-계야의 형태로 수의적 현상을 보이며 나타난다.

다음은 음운현상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17세기초 언어사실로 자음동화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자음동화 중에 조음방식동화가 여러 군데에서 표기에 반영되어 있다.

- (2) 음식 멍느니(5b), 우호로 향하여 인논(5b), 잠깐 스이에 인느니(12b), 도니다가(14b), 빈 골코 몽 몰라도(16b) (밑줄은 필자가 칩, 이하 동일)

이미 15세기 문헌에서 종성의 'ㄷ'이 연쇄하는 'ㄴ' 후행자음에 의한 조음방식동화를 일으키는 예가 존재한다. 그리고 16세기 문헌에 '인논(<인논)'과 같이 종성의 마찰음이 음절말에서 폐쇄음화되고, 그 이후에 조음방식동화를 일으킨 예들이 있다. 하지만 15·16세기 문헌에 [+grave] 자질을 갖는 연구개음이 후행자음에 동화된 표기는 나타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멍느니, 몽 몰라도'와 같은 《父母恩重經》의 예를 통해 적어도 17세기초에는 종성의 'ㄱ'이 연쇄하는 비자음에 의해 조음방식동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예들을 통해 16·17세기에 이미 후부변자음에 조음방식동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국어음운사에서 중요한 획이 되는 구개음화이다. 이와 같은 구개음화 중에 특히 'ㄷ' 구개음화가 栗寺本 《父母恩重經》에서 보인다. 구개음화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에서 'ㄷ' 구개음화가 표기에 반영된 예는 오직 하나이다. 그리고 이 예는 간기미상본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 (3) 놉지 아니하니(6b)

이기문(1972: 64~69)에 따르면 'ㄷ>ㅈ' 변화는 중앙어에서 대체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교체기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동남방언 및 서남방언에서의 'ㄷ>ㅈ' 변화는 17세기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7세기초에 충청방언에서는 'ㄷ>ㅈ' 구개음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16세기 충청방언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淸州北一面順天金氏墓出土簡札>에서는 구개음화가 반영된 예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16세기까지는 충청방언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ㄷ’ 구개음화가 17세기초에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따라서 대체로 이기문(1972년: 64~69)의 견해가 옳바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⁵⁾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원순성동화이다. 원순성동화란 ‘비원순모음이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원순모음의 원순성 자질에 이끌려 원순모음으로 동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원순성동화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4) 가. 부터도 저소오며(3a)
 나. 여들 섬 너 말 머그모로(3b)
 다. 계 쁘도로 흐느니(13b)
 르. 부모의 은눌 갑소오리잇고(17b)

(4가, 나)에서 ‘저소오며’는 15세기에 ‘저싸오며’로 나타날 자리이다. 실제로 ‘갑소오리잇고’는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갑스오리잇고(22a)’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서 ‘-쓰-’나 ‘-스-’가 바로 뒤에 연쇄하는 ‘-오-’의 원순성 자질에 이끌리고, 이것이 통시적 변화를 입어서 ‘저소오며’와 ‘갑소오리잇고’로 변화하였다. (4나, 다)도 마찬가지로 ‘-으-’가 ‘-로-’의 모음이 가진 원순성에 이끌리어 ‘-오-’로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비원순모음이 원순모음에 의해서 원순성동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4)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 조사의 모음 중에서 ‘-/-’와 같은 약모음에 한정하여 발생한다. 이와 같은 원순성동화는 근대국어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5.2. 문법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문법적인 특징은 감동법 표현에 있다. 고영근(1987)에 따르면, 중세국어 감동법 선어말어미로는 대표적으로 ‘-뫼-’가 있다. 그리고 약간 보수적인 ‘-웃-’이 있으며, ‘-스-’도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들은 감동법 선어말어미의 이형태들로서 대체로 상보적 분포를 보

25) 그러나 이 문헌이 충청권에서 발간되었고, 중앙권과는 지리적 거리가 크지 않으므로 실제 중앙어에서 ‘ㄷ>ㅈ’ 구개음화 현상이 17·8세기 교체기보다 이른 시기까지 소급될 가능성이 있다.

인다. 그러나 이승희(1996: 76)에 따르면 15세기 문헌에 감동법 선어말어미 ‘-웃-’이 포함된 ‘-눗다’와 여기에 다시 감동법 선어말어미 ‘-도-’가 더 통합된 ‘-눗도다’가 드물기는 하지만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6세기에는 ‘-눗다’, ‘-눗도다’와 함께 ‘-눗도다’의 예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음의 (5), (6), (7), (8)은 이승희(1996: 76)의 견해를 방증하는 흥미있는 것이다.

- (5) ㄱ. 그되 가 들 쯤비 불췌 이도다(석보상절 6: 35)
 ㄴ. 이 男子 | 精誠이 至極홀췌 보비롤 아니 앓기눗다(월인석보 1: 11)
 ㄷ. 다룬 지뵈도 돌기 췌 기세 오르눗도다(두시언해 초간본 13: 19)
 ㄹ. 女其奴叱斗多(녀기눗두다)(시경석의 23b), 勸爲奴叱刀多(勸호눗도다)(시경석의 2b)²⁶⁾
 ㅁ. 無豆舍叱多(업두샷다)(안축의 《관동별곡》)

(5)의 예는 중세국어에서 보이는 감동법 선어말어미를 포함한 예문들이다. (5ㄱ, ㄴ)은 중세국어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예문들이고, (5ㄷ, ㄹ, ㅁ)과 같은 감동법 선어말어미에 해당되는 형태소 ‘-웃-’과 ‘-도(두)-’ 및 ‘-도(두)-’와 ‘-스-’이 동시에 나타나는 극히 드문 예문들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감동법이 실현된 경우가 16·17세기 자료인 《父母恩重經》에서 동시에 나타난다.

- (6) ㄱ. 사랑이 그지 업도다(8a)
 ㄴ. 눈므른 일천 주리 흐르눗다(10a)
- (7) ㄱ. 설우리 간담이 스뭇눗도다(7b)
 ㄴ. 아기란 므른 디 누이눗도다(8b)
 ㄷ. 어여버 호눗도다(9a)
- (8) ㄱ. 집 나건 디 오라도 이룬 모르눗도다(2a)
 ㄴ. 바람물 저허 호눗도다(6b)
 ㄷ. 어이노 므스물 곶눗도다(使母心酸)(10b)

26)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에서 간행된 《퇴계학연구》 제8집에 수록된 《詩經釋義》를 참조할 수 있다.

(6)의 예문은 (5ㄱ, ㄴ)과 같은 경우이고, (7)은 중세국어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특이한 감동법의 실현인 (5ㄷ, ㄹ, ㅁ)과 같은 경우이다. 즉 감동법을 나타내는 접미사 '-웃-'과 '-도-'가 통합관계에 있다.²⁷⁾ 이것은 일종의 '이중감동법'이라 할 수 있다. (8)은 더 특이한 현상으로 '-느--+--웃-'에서 '-오-'가 탈락하였다. 이것은 '-오-'가 인칭법 선어말어미로 착각하고 제거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해 본다. 덧붙여 18세기에는 '흐느뜨다'도 보인다는 사실을 지적해 둔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의문형 종결어미의 불규칙한 사용에 있다. 15세기에 종결어미가, 의문사가 없을 때(판정의문)에는 '-가'로 종결하고 의문사가 있을 때(설명어문)에는 '-고'로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미 15세기 국어에서 약간씩 이 엄격한 원칙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이현희, 1994: 137). 이러한 사실은 16세기 국어에 이어지고 17세기 국어에 반영되었음이 《父母恩重經》에서 확인할 수 있다.

- (9) ㄱ. 엇네 하야사 가쁘리잇고(3b)/엇네 하야사 부모의 은놀 갑쁘리잇고(24b)
 ㄴ. 엇네 하야사 부모의 은놀 갑소오리잇고(17b)
 ㄷ. 엇네 하야사 부모의 은놀 갑소오리잇고(22a)

- (10) ㄱ. 씨 흔 가지어든 엇네 알리잇가(3a)
 ㄴ. 이 경의 일호물 엇네 흐니잇가(26a)

(9)는 15세기 의문법의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 그러나 (10)은 엄격한 의미의 의문법 원칙에 맞지 않다. 이것은 《父母恩重經》이 발간된 16·17세기에 의문문에서 의문사와 종결어미의 호응관계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것은 의문 조사 '-가/고'가 15세기 국어에서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하다가 16·17세기에 '-가' 쪽으로 통일되어 가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은 근대국어와 현대국어로 올수록 보편화된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상 표시의 실현에 있다. 상이란 '상황의 내적 시간구조를 바라보는 방법'을 나타내는 문법범주를 말한다(최동주, 1995: 22).

27) 이와 같은 현상은 피동법에도 보인다. 즉 '서다→세우다, 자다→재우다, 타다→태우다' 등에서 사동 접미사가 동시에 둘이 통합관계에 나타난다. 이것을 '이중사동법'이라 한다.

15세기 상 표시의 실현 방법 가운데 ‘-고 잇-’은 진행의 시간구조를 갖는 비완료상이다. 특히 ‘-고 잇-’은 동작 진행의 표현만 가능하였다. 즉 완료 상태지속은 ‘-고 잇-’으로 나타나지 않고, 자·타동사, 형용사와 비교적 결합이 자유로웠던 ‘-어 잇-’으로 실현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드물기는 하지만 완료 상태지속의 의미를 가지는 ‘-고 잇-’이 이미 15세기 국어에 존재한다.²⁸⁾ 그리고 《父母恩重經》에 ‘-고 잇-’이 완료 상태지속을 보이는 예가 있다.

(11) ㄱ. 단장호여 의실 시(2b)

ㄴ. 띄 띄오 휘 신고 이실 시(2b)

(11ㄱ)은 15세기에든 흔히 볼 수 있는 완료 상태지속의 상 표시법이다. 그러나 (11ㄴ)은 15세기에 잘 볼 수 없는 완료 상태지속의 상 표시법이다. ‘-고 잇-’의 완료 상태지속 표현이 16·17세기에는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5세기 국어에 극히 드물게 보이던 ‘-고 잇-’이 점차 그 세력을 확대해 가다가 16·17세기 국어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3. 어휘 및 표기

이 항에서는 《父母恩重經》에 보이는 특이한 어휘나 해석이 어려운 어휘, 그리고 표기가 특이하여 눈에 띄는 것을 중심으로 기술하겠다.

(12) 하전되오(3a), 회타(6a), 돈니의(6b), 겨집하야(14a), 겨집(16a)

‘하전되오’는 ‘방자하고(恣)’의 뜻인데, 다른 문헌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회타(懷胎)’는 원래 ‘태를 품다’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문맥상으로 파악할 때,²⁹⁾ ‘胎兒’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 같다. ‘돈니의’는 송광사본과 대비한 결과 ‘돈니의’의 오각으로 판정된다. 형태소 분석은 ‘돈+니+의(동명사형어미)+의(처소격조사)’ 정도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다니기에, 다니기에

28) ‘環刀 | 며 막다허를 두르고 이서도(월인석보 7: 5)’는 문맥상으로 보면 ‘환도와 막대물(허리에) 두르고 있어도’ 정도의 의미로서 이 때의 ‘-고 잇-’은 ‘두르는 동작이 완료되고 나서 그 두른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완료 상태지속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29) ‘넉드리면 회타 점점 사라미 얼구리 이느니(四箇月懷胎稍作人形)(4b)’는 ‘넉달이면 태아가 점점 사람의 형체로 되니’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있어서' 정도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겨집'은 원래 '여자'라는 의미이고, 드물게 '아내'의 의미를 갖는다. 《父母恩重經》에 보이는 '겨집'은 이들과도 좀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겨집'은 '혼인하여'의 뜻으로 사용되었고, '겨집'은 '妻妾'의 한자를 언해한 것으로 '아내'뿐만 아니라 '첩'의 의미까지 함축한다.

표기상 특이한 것은 다음과 같다.

- (13) 가. 여뵘(3b)/여뵘(5a),
 나. 고(鼻)와(4b), 복송와(5b), 먹디 말고(5b), 거우로예(6b), 비브르개(8a),
 년꺄(9b), 브효(11b), 동상(13b)/동상(15a),
 다. 수미산니(5b), 업산니(5b), 보람물(6b), 은눌(18a), 복꺄(22b)
 르. 아란(2a)

(13가)에서 '여뵘'은 아주 특이하게 나타난다. 2음절의 종성인 'ㅁ'이 마치 순경음 'ㅁ'과 같이 세로로 표기되어 있다. 栗寺本 《父母恩重經》과 栗寺本の 各각본인 간기미상본에는 'ㅁ'을 세로로 표기한 것 같이 보이는 예가 있다. 'ㅁ'이 세로로 표기된 것은 자음군이 단순화되어 그것이 표기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ㅁ'이 세로로 표기된 경우는 다른 문헌에는 아직 확인된 적이 없는 표기로서 '여뵘'의 종성이 'ㅁ' 어간말 자음군이라는 인식이 없어져서 'ㅁ'으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13나)에서 '고와'는 15세기식 표시방법으로는 '고와'가 되어야 할 것이나, '고'가 'ㅎ' 종성 체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³⁰⁾ '복송와'는 15세기에 '복성화, 복상화'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미 이 시기에는 'ㅎ'탈락과 함께 특이하게 나타난다. '먹디 말고'는 'ㄱ'탈락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고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ㄱ' 뒤에 'ㄱ'이 탈락하지 않고 '-고' 등으로 표기가 통일되는 일종의 '패러다임의 규칙화'를 겪은 경우이다. '거우로예, 비브르개, 년꺄'은 각각 '거우로예, 비브르개, 년꺄'의 誤字인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비브르개'는 이 책의 各각본인 간기미상본에는 '비브르개'로 교정되어 나타난다. '브효'는 이 책의 여러 군데에 나타나는데, 음운론적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한가지 가능성은 'ㅎ'이 '요'에 의해 구개음화되어서, 구개음 'ㅈ' 앞에서 'ㄱ'이 탈락

30) 'ㅎ' 종성 체언에 대한 인식에 혼란이 보이는 것은 15세기 국어에서부터이다. 이미 15세기 말부터 'ㅎ' 종성이 없어진 역사적 사실이 《父母恩重經》에 반영된 것이다.

하듯, ‘불효’가 ‘브효’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동심/동심’ 표기는 ‘오’의 표기가 문란해진 것을 보여 준다. (13ㄷ)은 표기의 혼란을 말하는 것이다. 즉 15세기에는 음소주의적 표기라고 할 수 있는 連綴표기가 일반적인 표기법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父母恩重經》에도 기본적인 표기 방법은 連綴표기이다. 그러나 分綴표기를 위한 과도기적 표기인 (13ㄷ)과 같은 重綴표기가 나타난다. 이미 문법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 分綴표기에 대한 욕구가 간헐적이지만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물결이 점차 높아져 17·18세기로 이어지고 드디어 分綴표기가 확고한 지위를 확보해 가기에 이르렀다(이익섭, 1992: 205). 이와 같은 국어 표기법에 대한 통시적 사실은 《父母恩重經》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미 15세기에 싹트기 시작한 형태주의적 표기에 대한 인식이 《父母恩重經》에 重綴표기로 반영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13ㄷ)에서 알 수 있듯이 부처의 으뜸 제자인 ‘阿難’의 국문표기에 《父母恩重經》에서 일률적으로 ‘아란’으로 나타난다. ‘阿難’은 15세기 문헌에서 ‘阿항難난’이나 ‘阿함難난’으로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難’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현실 한자음도 항상 ‘난’으로 독음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阿’의 독음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안병희(1992: 46)에서는 원래 ‘阿’에 대한 독음을 언중들이 ‘항’로 인식했으나, 후대에 불경 지식이 심화되면서 그 잘못을 깨달아 수정한 ‘함’이 표기에 등장한 것으로 본다. 그 이유로 이러한 사실은 《능엄경언해》를 경계로 하여 그 전의 《석보상절》과 《월인석보》는 ‘항’, 그 이후의 《법화경언해》 등에는 ‘함’이 표기에 반영되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阿難’의 표기가 16세기 현실 한자음이 반영된 문헌에서는 ‘아난, 아란’으로 나타난다. 이 두 가지 표기는 ‘難’의 한자음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16세기에 오면 ‘難’이 ‘란’으로도 읽히기도 한다.³¹⁾ 이와 같은 한자음 변화 관계가 《父母恩重經》에 반영되어 ‘아란’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31) 이현희(1994: 202~3)의 각주 16)을 참조할 것.

6. 맺음말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자식의 부모에 대한 도리를 밝힌 佛書로 조선시대에 널리 읽히던 책이다. 그래서 그만큼 이본도 다양하다. 필자는 이들 이본 가운데 최근에 공개된 栗寺本을 중심으로 서지적 사항을 소개하고 국어사덕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밝혀진 주요 사실을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을 하도록 하겠다.

- ① 栗寺本은 만력 46年(1618년, 광해 10년)에 公洪道(충청도) 公州地(공주군) 鷄龍山 栗寺에서 重刊한 寺刹本으로 최근에 소개되었다.
- ② 현재까지 공개된 最古本인 송광사본을 비롯하여 회방사본, 栗寺本은 모두 같은 판식인 것으로 추정되는바, 같은 원간본을 본떠서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간기미상본은 위의 이본들 가운데 가장 최근에 공개된 栗寺本의 복각본임이 확실하다. 따라서 간기미상본은 적어도 17세기초까지 간행 연대가 소급된다.
- ③ 이 책의 내용상 체계를 보면, 첫부분은 阿難을 비롯한 여러 弟子와 大衆의 물음에 부처가 대답하는 대화체 형식으로 되어 있고, 둘째 부분은 소위 액자식 구성이라 할 수 있는 삽화와 함께 어미가 자식을 배고 낳은 후의 열 가지 은혜를 열거하는 부분이 있다. 그 이후 장에서 다시 부처와 제자의 대화가 나타나고, 다시 삽화와 함께 은혜의 깊음에 대한 여덟 가지의 假定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대화체 형식으로 나타난다.
- ④ ‘ㅅ’을 갖는 어형에 대해 ‘ㅅ’을 갖는 방언형이 공존하는 예가 보인다. 중세 국어의 ‘-ㅅ’는 근대국어로 이어지면서 ‘-ㅅ’, -ㅅ’로 파악할 수 있는데, ‘도계사, 이숙계사’는 그러한 파악을 증명한다. 즉 이 때의 ‘-ㅅ’는 ‘-ㅅ’나 ‘-ㅅ’로서, 이들 음절에 존재하는 ‘j’가 선행 음절에 영향을 미쳐 ‘-거-’가 ‘-계-’로 표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고대국어의 ‘-ㅅ’가 방언형에 그대

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는 ‘엇데하야사’가 보인다.

- ⑤ ‘멍느니(5b), 몽 달라도(16b)’와 같은 예에서 17세기 이전에 후부변자음의 조음방식동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넙지 아니하니(6b)’의 예에서 우리는 ‘ㄷ>ㅈ’ 구개음화가 적어도 17세기초까지 소급됨을 알 수 있다. 원순모음의 영향으로 비원순모음이 원순모음으로 변화를 입은 예들이 보인다.
- ⑥ 이중감동법 표현이 이미 이 중세국어 시기에 나타나며, 의문형 종결의미가 의문사와 호응하지 않는 것도 중세국어 시기에 약간씩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16·17세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父母恩重經》에서 볼 수 있다. ‘-고 잇-’의 상태 진행적 용법이 나타나는데, 16·17세기 이전에 이미 ‘-고 잇-’의 용법이 동작 진행의 용법과 함께 상태 진행의 용법까지 쓰임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 ⑦ ‘하전되오(3a), 복송와(5b)’ 등의 특이한 어휘나 표기가 지적될 수 있고, 특히 ‘여들’은 아주 특이하게 나타난다. 2음절의 종성인 ‘ㄷ’이 마치 순경음 ‘ㄴ’과 같이 세로로 표기되어 있어 자음군이 단순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栗寺本과 栗寺本의 복사본인 간기미상본에는 ‘ㄷ’을 세로로 표기한 곳이 보인다. 이것은 ‘여들’에 대한 어간말 자음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나타난 것으로 일종의 ‘어간의 재구조화’로 보인다.

<참고 논저>

고영근(1987), 《표준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남풍현·김두찬·윤승준(1995), <借字表記의 ‘詩經釋義’ 註解(1)>, 《퇴계학 연구》 제9호.

안병희(1992), 《國語史 資料 研究》, 文學과知性社.

이기문(1972-), 《國語史概說》(改訂版), 塔出版社.

_____ (1972-), 《國語音韻史研究》, 塔出版社.

- 이민수(1972), 《父母恩重經》(乙酉文庫 100), 乙酉文化社.
- 이병근(1996), <16·17세기 연간의 표기에 대한 음운론적 이해>,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정신문화연구》 19-3.
- 이승희(1996), <중세국어 감동법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익섭(1992), 《國語表記法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현희(1994), 《中世國語構文研究》, 신구문화사.
- _____ (1995), <‘-샤’와 ‘-沙’>, 《韓日語學論叢》(남학이종철선생 회갑기념
논총), 국학자료원.
- 전광현(1986), 해제,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韓國語學資料叢書 第七
輯), 太學社.
- 전철웅(1985), <‘清州北一面順天金氏墓出土簡札’의 判讀文>, 《호서문화연
구》 제13집.
- 최동주(1995), <國語 時相體系의 通時的 變化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현배(1940), 《한글갈》, 정음사.